한국어 고급반을 위한 한국 고전전래문학 및 고시조 활용

Consideration for teaching methods in advanced courses by using Korean folk literature and classical poetry

퀼른대학교 교양학부 박희영

1. 서론

한글은 한글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진 지구상 곳곳 많은 이들의 부단한 노력 등에 힘입어 한국 전통문화 소개와 함께 끊임없이 세계화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글 언어교육에 필수적인 문법체계나 언어교수법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학,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등 한국관련 전영역에서의 교수법이 요구되고 있다.[1]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반영역을 총체적으로 다루기위한 한 맥락으로 퀼른 대학교에서도 예전 중국학과 일본학 중심의 동양학부(Ost-Asiatisches-Seminar)내에 귀속되어있던 한국어(Koreanisch für Hörer aller Fakultät) 강좌가 현재는 Studium Integrale[2], 즉 교양강좌 체제로 바뀌어 본교 전 단과대학 학생들이 학제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퀼른 대학교의 특성상 한국어의 전 코스 (4 강좌)를 한국어 전공 학생이 아닌 다수의 비전공 학생들이[3] 필자의 수업과 그들 나름대로의 학문적 언어습득체계를 마치고 “유럽 공동 어학수준 자격증”, “GeR (Gemeinsame europäische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4] B1 수준에 도달해 있는 퀼른 대학교 단과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수법의[5]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한국어를 통해 수업내용의 특별한 규제없이 단지 한국어 문법 전달이라는 단계를 넘어 한국의 가치관 내지는 한국인의 정서 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논고에서는 한국 문학자료의 선택을 통해 한글만의 전달이 아닌 광범위한 “한국 가치관 전달과 공유”에 중점을 두고 교양강좌로서의 한국어 고급반을 위한 수업자료 활용과 공유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한국 문화, 문학 실행의 예

---

1 윤여탁(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위상과 역할에서부터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전우·강수(2017)의 중국 범주강삼각주 지역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문학 교육 방안 연구 외 다수.

2 학문의 전문적 연구는 대학내 세미나에서 전공으로 수업받을 수 있는 전공수업에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대학에도 소속되지 않고 교내 모든 대학과 학부를 상대로 한국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취급하는 동양학 전공학생들이 한자를 전제로 하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 한다 해도 필자 교수체험에 의하면 새로운 동양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양학부 학생들보다 다른 학부학생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초기 한글 습득과정에서는 한자가 한글 습득시 오히려 (모국어) 언어 간섭 (Interferęnz)이라는 방해현상을 발생해 읽기·이해하기 부분에서보다 말하기, 즉 한글 발음에서 실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5 한자를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는 중국학, 일본학 전공학생들은 한자라는 공통매체를 통해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는 달리 텍스트의 의미 전달이 용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희영(2009)의 한국어로 습득하는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한자의 위상 참조.

고급반 수업에서 전래동화의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선행적 결론을 내린 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바 그것은 바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에 대한 결론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수의 한국문학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에델투르드 김의, 한국의 것을 독일어로 제대로 전달하기위해 “texttreue ist, so erweist sich, ein relativer Begriff. Den Wörtern oder den Sätzen des Originals treu zu bleiben, das kann dazu führen, dass man dem Sinn des Ganzen untreu geworden ist. Der Wunsch, dem Sinn treu zu bleiben, kann dazu führen, dass man den Wörtern des Originals untreu werden muss. Hier gibt es keine Regel, hier ist jeder Übersetzer auf sein Einfühlungsvermögen und auf sein Verantwortungsbewusstsein verwiesen.”[6] 라 정의한 결론에 동의, 수용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한국어의 독일어번역의 문제점에 입각하여 쾰른대 고급반 학생들이 모국어 학생들, 즉 한국학생들의 도움을 받아도 무관하다는 허용의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학습자료로서의 전래동화의 문법요소, 성분 분석 등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번역작업으로 진행된다. 수업담당자에 따라 교수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선호하는 한국 문화영역 등에 따라 문학작품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며 학습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나기에 필자는 학습자료선택시 저작권의 문제가 없다는 것과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한국문학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가치관이라면 객관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권선징악” , “무병장수” , “효” , “충” , “보은” , “신의” 등인데 이미 여러가지 SNS 매체와 한국관련 독서 등을 통해 GeR B1 수준에 도달한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쾰른대 고급반 학생들을 위해 한국문학의 가치관이나 정서, 지혜의 전달을 위해 전래동화 편에서는 “나무그늘을 산 총각”과 한국인의 보은사상이 담겨진 작품으로 두루 알려진 “은혜 갚은 꿩”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쾰른 대학교 커리큘럼에 의거해 한 학기 15 주, 매주 90 분 수업을 통해 진행된다. 기존하는 일리아스(ILIAS) 라는 쾰른대학교 E-Learning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올려놓고 공유하는 것과는 별도로 쾰른대 한국어 수업에서는 매학기 초에 한글 전달이 용이한 “쾰른대학교 한국어 수업 카톡방 (KakaoTalk)”을 만들어 매우 긴밀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찬·반, 호·비호감 등의 의견을 낸다.

2. 1. 한글 전래동화, 나무그늘을 산 총각

한국의 전래동화는 대부분 기록문학이 아닌 구비문학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작자미상인 것이 특징인 것을 감안하여 교양강좌 고급반 한국어 수준에 맞는 첫 작품으로 “나무그늘을 산 총각”을 선택하였는데[7] 수업자료 준비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수업임을 고려해 불

6 Edeltrud Kim (2015): “텍스트에 충실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원문이나 단어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칫 작품 전체에 불충실하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며 의미전달에 충실하겠다는 바램은 원어에 불충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는 어떤 규범도 없다. 다만 번역가의 감성과 책임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 역)

7 독일대학내 한국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한국문학에 대한 교수법도 전문적으로 다뤄지고 있기에 쾰른대의 전문적 인재양성이 아닌 인문학적 교양강좌내에서의 한국어 교육과는 차별화됨을 밝힌다.

필요하게 설명이 요구되는 단어나 표현은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수정하였다.[8] 학습자료로 쾰른대 고급반에서 사용된 본문은 다음과 같다.

2.1.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부자 영감은 느티나무 그늘에 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일을 하던 한 총각이 부자 영감이 자고 있는 나무 그늘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총각이 시원한 그늘에서 한참 쉬고 있는데 부자 영감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부자 영감은 총각을 보자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왜 남의 그늘에 함부로 들어왔지? 썩 나가지 못해”
총각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영감님의 그늘이라니요?”
그러나 부자 영감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무 그늘은 내 것이란 말이다!”
“영감님,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나무입니다.”
총각이 이렇게 말하자 부자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다. 잔 말 말고 썩 나가!”
총각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영감님, 이 나무 그늘을 저에게 팔 지 않으시겠어요?”
부자 영감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무렴, 나무 그늘도 임자가 있지. 바로 내가 이 나무 그늘의 주인이란 말야. 닷 냥만 내고 사 가게.”
총각은 빨리 닷 냥을 가져다가 부자 영감에게 주었습니다.
“하하, 나무 그늘을 사는 어리석은 녀석이 다 있구나.”
부자 영감은 자리를 걷어서 다른 나무 그늘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기울자 나무 그늘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느티나무 그림자는 부자 영감네 담장을 넘어 안마당까지 드리워졌습니다.
나무 그늘에 누워 있던 총각은 그늘을 따라 부자 영감네 안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을 본 부자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왜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그러자 총각은 부자 영감네 안마당에 드리워진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떡 버티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저에게 이 나무 그늘을 팔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늘이 어디에 생기든지 모두 저의 것이지요.”
부자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 그늘은 점점 길게 늘어져서 부잣집 마루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총각은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벌렁 누웠습니다.
부자 영감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내 그늘은 부잣집 안방까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총각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저벅저벅 들어갔습니다.
해가 져서 나무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얼른 부잣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부잣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닷 냥을 줄 테니 나무 그늘을 돌려 주게”
“이렇게 좋은 그늘을 돌려달라니요? 안됩니다.”
총각은 계속 부잣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 영감을 욕심장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자 영감은 집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총각은 큰 집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느티나무 그늘에서 마음껏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습자료로는 한국어의 최고 격식체 (die 5. Sprechstufe) 인 “-습니다” 체를 사용했으나 수업 실현중에는 “-요” (die 4. Sprechstufe) 체를 사용해 어미변화를 연습하게 된다. 읽기 심화단계에서는 “-다” (die 2. Sprechstufe) 를 사용함으로서 반말문법을 충분히 학습한 고급반 학생들이 순차적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준비도입단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고급반 학생이라 할 지라도 담화 내용이나 활용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꾸준히 오류를 범하는 텍스트에 나타난 조사를 찾아 다양한 색의 마커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문장 파악을 시도: 예) 은, 는, 을, 를, 에게, 에서, 과, 와, 이랑, 하고, 함께, 으로 등
- 한글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화용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의 요구: 예) cf. 우리<u>들 *(x),*</u> 마을 사람<u>들</u>

8 “느티나무”라는 단어도 빠른 원문이해를 위해 단순히 “나무”로 통일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느티나무야말로 버드나무 등과 비교해 볼 때 한국적 개념이라 여겨 오히려 이 단어를 학생들에게 각인시켰다. “빨리”는 “부리나케”를 변형한 것이다.

- 두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는 연결형(Konjunktional-Form)과 연결어미 발색, 일상문에서의 화행 실행: 예) 그리고, 그러나, 그러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 그러니까 등
- 숫자를 수량명사 (Zählwort)와 함께 사용하도록 이 시점에서 Sinokoreanisch (한자 숫자) 와 Pur-Koreanisch (순수 한글숫자)가 어떻게 달리 활용되는 지 복습: 예) 한 그루, 세 번, 두 마리, 한 번만 등
-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다수의 의성어와 의태어 중점적 재조명 : 예) “벌컥”, “벌렁“, “성큼성큼“, “동동“, “꾹“, “썩“, "떡“, "버럭“, “저벅저벅”, „솔깃”, “깜짝”, “깍깍”, “뎅뎅뎅”, “칭칭”, “날름”, “스르르”, “쉭, 쉭, 쉬이익” 등
- 화폐를 나타내는 단어 소개: 예) 닷 냥[9] 등
- 인물을 가르키는 한국특유 인물지칭어 소개: 예) 영감, 총각, 욕심장이, 심술장이, 아낙, 선비, 누이, 나그네 등
- 문법적 접근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고 연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위치를 나타내는 말: 예) 집 앞, 안마당, 그늘 아래, 먼 곳 등

  - 신체부분을 이용한 동작[10]: 예) 코웃음을 치다, 귀가 솔깃하다, 발을 동동 구르다, 손가락질하다 (“-질하다” 와 연계하여 서방질하다, 도둑질하다, 선생질하다등 언급)
- 새로 나온 낱말의 뜻을 사전이나 구글 검색기를 통해 독일어로 번역하며[11] 텍스트의 새 단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보게 한다. 글짓기 과제는 도입 단계에서가 아닌 정리 단계에서 시간의 여유에 따라 실행순서를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수업초기에 시도함으로서 학생들이 텍스트에 빨리 익숙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 한·독 가치관의 상이한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총각이 꾀를 내어 부자 영감의 집과 나무그늘을 얻은 과정과 그 결과로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익을 얻은 것”에 대해 법의 나라로 알려진 독일에서의 그러한 “소유·매입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한다.
- 끝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향상을 돕기 위해 번역과 해석후, 각 단과대학생들의 특성이 잘 반영되는 상황해석 역할극을 만든다.

2.2. 한글 전래동화, 은혜 갚은 꿩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화 중에는 “은혜 갚은 꿩”과 거의 흡사한 “은혜를 갚은 까치”라는 전래동화가 있다. 두 글 모두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것을 주제로 한 글인데 “은혜를 갚은 까치”에서는 나그네가 선비로 표현되고 죽임을 당한 구렁이는 오라비가 아닌 남편으로 기록된 것이 다르다. 한편 선비가 한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입장 내지 가치관을 주장을 하는 안티 주제의식의 글도, 교수자가 학습자료 글을 선택하되 한국적 정서 비판이 아닌 학생들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토론 여부를 위해 소개하였다.[12] 단, 쾰른대 고급반 학습자료로는

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다섯을 “닷”으로 줄이지 않느데, 학생들이 언어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어감의 차이를 감지하도록 “닷 냥”을 그래도 두었다.
10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 신체의 일부를 가르키고 그에 따르는 동사를 찾는 것이 동사학습에 도움이 된다.
11 질의 조사결과 학생들은 구글 한독 사전이나 번역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12 전래동화 뒤집기(2007): 은혜갚은 까치. 발바닥이 찍고 온 이야기

사용하지 않았으나 두 전래동화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결어미체가 다르므로 종결어미 연습에 도움이 된다. 두 전래동화의 교훈이나 주제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관련 연구자들의 토론과 비판이 요구된다.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까치
옛날에 한 나그네가 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쉭, 쉭, 쉬이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렁이가 꿩을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재빨리 구렁이에게 활을 쏘아 꿩을 구해 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나그네는 외딴 집의 헛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던 나그네는 가슴이 답답하여 눈을 떴습니다. "앗!" 커다란 구렁이가 나그네의 온몸을 칭칭감고 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오라버니를 죽였지? 나는 네가 낮에 죽인 구렁이의 동생이다.” 나그네는 살려 달라고 빌었습니다. “좋다. 날이 밝기 전에 저 산의 빈 절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살려 주겠다.” 나그네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점점 더 세게 나그네의 몸을 조였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뎅, 뎅, 뎅.” 종이 세 번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나그네는 빈 절에 가 보았습니다. 꿩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큰 종 아래 죽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착하고 활을 잘 쏘는 선비가 살았다. 선비는 과거를 보러가기 위해 산길을 가던 중에 커다란 구렁이가 까치 둥지 앞에서 혀를 날름거리는 걸 보았다. 어미 까치는 새끼들이 잡혀먹힐가 봐 "깍깍" 울고 있었다. 선비는 재빨리 화살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다. 구렁이는 화살에 맞아 나무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어미 까치와 새끼 까치가 선비에게 고맙다는 듯 '깍깍' 하고 울었다. 선비는 다시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 하루 묵어가기 위해 불빛이 비치는 집으로 갔다. "누구 없소?" 조금 있으니 그 집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낙이 조용히 나왔다. '누가 죽었나 보군. 소복을 입고 있으니.....' 선비는 속으로 생각하고 아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지요?" "남편이 오늘 돌아가셨지만 들어오세요." 아낙은 선비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밥도 차려 주었다. "고맙소! 부인." 아낙이 차려 준 밥을 먹고 선비는 잠자리에 들었다. 잠결에 차가운 느낌이 나서 선비는 눈을 떴다. 그랬더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그 구렁이는 바로 오늘 낮에 선비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였다.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자로 변해서 선비를 붙잡아 두었던 것이다. 선비가 구렁이에게 빌었다. "한 번만 살려 주시오." 구렁이는 싸늘하게 대답했다. "좋다. 날이 새기 전에 집 뒤의 종이 세 번 울리면 널 살려 주겠다."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날이 새기 전에 이런 깊은 산 속의 집에 종을 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선비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닭이 울어 구렁이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였다. '뎅! 뎅! 뎅!'하고 종이 세 번 울렸다. 구렁이도 선비도 너무나 놀랐다. "분하지만 약속은 지키겠다." 구렁이가 스르르 사라지자 선비는 집 뒤로 달려갔다. 종탑 밑에는 어미 까치 두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 어미 까치는 선비를 따라 구렁이네 집에 갔다가 그 모든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새끼들을 살려 준 선비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제 머리를 종에 부딪쳐 종소리를 낸 것이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어미 까치를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다.

전래동화 “나무그늘을 산 총각”에서와 같이 고급반 수업 참가자들은 “은혜 갚은 꿩”을 읽고 다음 학습행위를 한다.

-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급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진행형 (Durativ) “-고 있다” 문장을 찾아내어 응용: 예) 걷고 있다, 날름거리고 있다, 밝아오고 있다 등.
  인용문형 (Quotativ) 연습으로는 “-라고 생각하다”, “-달라고 빌다” 등.

- 2.1 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혜 갚은 꿩”에서도 담화완성의 계기로서 의성어, 의태어인 “쉭, 쉭, 쉬이익” 등 이상함을 나타내는 의성어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뎅, 뎅, 뎅”과 같은 종소리 외에 다른 종소리 소리가 있는 지 알아보고 독일의 종소리에 대한 의성어와 비교. “칭칭감다”, “날름거리다“, “슬그머니” 등과 같은 시청각 묘사 (bildhafte Darstellung)의 의태어를 찾는다.

- 나아가 한국의 민속놀이 종류 / 한국의 국경일, 경축일 / 한국음식 종류와 먹는 방법 / 휴일이나 전통 관습 / 한국의 시험제도 (여기서는 “과거를 보다“) /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등) / 상반되는 장소 (양지, 음지)등 심층조사 및연구.
- “헛간” 이라던가 “절”이라는 단어의 부연 설명을 위해 한국의 가옥에 대해 조사해 보고 검색범위를 넓혀 한옥과 양옥 등을 비교. 단과대학별로 놀랍도록 다양한 프리젠테이션의 비교와 개발이 가능하다.
- 다의미를 지닌 단어 “잠자리” (동침 / 잠을 자는 자리 / 곤충)의 차잇점에서 나타나는 한글 “이음동의어” 지식교환

내용 파악 확인여부를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다. 이러한 질문은 경우에 따라 모든 학습자료를 다룬 후 실행한다:

- 왜 구렁이는 나그네를 해치려 하였는가?
- 구렁이는 빈 절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 나그네는 어떻게 하여 살 수 있게 되었는가?
- 꿩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큰 종 아래 죽어 있는 것을 본 나그네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화용적 이해 파악여부를 위해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다음과 같은 질의토론을 해 볼 수 있다:

- 나그네가 한 행동은 독일인의 정서와 맞는가?
- 이글은 어느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를 맞으며 흥미진진해지는가?
- 독일 가치관을 가진 수업 참가자들은 이러한 결말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 수업 참가자들도 일상에서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 줄 준비가 되어있는가? 너무 지나친 은혜의 보답은 아닌가? 궁극적으로 이 전래동화를 통해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은혜갚기” 및 “보은 사상” 등과 독일인의“Dankbarkeit (감사의 마음)”나 “Loyalität (충성심)” 등에 대해서 각 개인의견을 교환한다.
- 후반부에서는 세 명의 수업 참가자들과 나레이션 역을 하는 한 명을 정하여 각각 나그네, 꿩, 구렁이가 하는 말을 직접화법의 역할극을 통해 말하게 한다. 이때 다른 동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역할을 바꿔보는 것을 통해 작품이해와 인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시, 시조

시조의 이해를 돕기위해 시조가 어떻게 고려말, 조선 초기를 걸쳐 우리 고유 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며 시조를 더 잘 이해가기 위해 형식면에서 평시조의 기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과 그 밖에 엇시조, 사설시조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13] 시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식이며 이는 3.4.3.4 / 3.4.3.4 / 3.5(6).4.3 (3 장 6 구 45 자 내외)의 운율인데 이 운율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른 시조를 더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생들 스스로도 시조의 일정한 규칙적 질서를 체험하게 하여 이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3.1 작자미상의 시조 한 편

번역하기 쉬운 시조 내용인 작가 미상의 시 한 편을 골라 이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다른 유럽인들에 비해 정치적 관심이 높아 정치담화를 즐기는 독일인들은 끊임없이 논리적인 토론을 요구하기에 이 시조 선택을 통해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이다.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도 내말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말때문에 시끄러워 질 것이니,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다분히 한국적 교훈일뿐일 수 있는 메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 쓸데없이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에서 “남의 말”이 어떤 말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독일 학생들에게도 “남의 말”이란 “남의 흉을 보는 말”인지 해석, 토론.

13 시조의 옛 이름은 단가, 시여, 신조 등이다. 조선 영조시대 당시 이세춘이란 사람이 이름 붙힌 것인데 이 부분은 제한된 시간내에서 시조집인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 고금가곡을 소개하고 한시와 향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지식전달의 폭을 넓히는 보조자료 부분이다.

- “것이”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연결문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것이다”도 될 수 있으며 “것이요”, “것이니라” 등으로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식을 맞추기 위해 글자 수를 줄이는 연습을 문법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대로 시현, 또한 대화체에서의 많은 “준말과 본디말”을 구별하여 활용하는 연습.
- “말을 것이”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의 축소형적 쓰임임을 참작, 현대 용어로의 담화완성형 실현 시도.
-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 까 하노라”의 형식을 이용하여 유사한 문장 만들기: 예) 돈으로써 돈 많으니 돈 많을 까 하노라, 질투로써 질투 많으니 질투 많을 까 하노라 등
- 시조의 주제이며 교훈인 “남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금지형 문법의 독일 내 인권침해 내지 사생활 간섭 여부 토론. 이와 관련 기독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독일 문화에서 금지형과 관련해 성경의 십계명과 연관하여 종교적 심층토론까지 연장가능하나 반드시 이슬람계 학생들의 의견 존중.

3.1. - 작자미상	**3.2.** 까마귀와 백로 - 이직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 까 하노라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 들 속조차 검을소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3.2. 까마귀와 백로

다른 시조들 처럼 역사와 관련된 시조로서, 고려가 망하자 고려 유신들이 새 조선왕조에 가담한 자들을 비난하므로 이에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직의 시조 “까마귀와 백로”이다. 작자는 두 왕조를 섬긴 자신의 처신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속마저 검은 것은 아니며 자신의 양심은 부끄럽지 않음을 강조한 시로서 평시조이며 풍자시다. 학생들은 다음의 과제로 실행순서에 의존하지 않고 Task 를 해결한다.

- 반대되는 말, 예사말과 공경을 나타내는 높임말을 구분하는 일과 퀼른대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14] 5 단계로 정리되어 있는 상대방 인식 경어를 재인식시킨다. 그리고 금지형 (Verbot-Form)을 익히기 위해 “ -지마라”를 활용한 담화를 만들어 본다.
- 한류 그룹 방탄소년의 “헷갈리게 하지마” (유튜브에서는 “danger”) 에서는 “헷갈리게 하지마”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수업 시간 전이나 후에 이곡의 영상과 함께 한글을 독일어 내용과 함께 카톡으로 전해주고[15] 금지형 연습.
- 이 글의 주제가 “소인에 대한 훈계 및 스스로의 결백 주장”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군자 (die Heiligen) 인 척하면서 실제 내면은 그렇지 못한 소인배 (die Scheinheiligen) 들을 풍자한 것에 관한 토론.
- 까마귀와 백로가 존재와 처신의 대조(Kontrast)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대조의 관점이 비슷한 류의 독일시와 비교 고찰.[16]
- 또한 이 시조도 3.1. 작자미상의 시와 같이 한국적인 “훈계사회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의 개인주의적 정서와는 아주 상이하여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끼게 하는, 사생활이나 각 개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훈계시의 장단점 관찰, 토론.

14 Dorothea Hoppmann (2009):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15 이 곡을 필자가 카톡에 올리자 학생들이 B.A.P 의 “하지마” (https://www.youtube.com/watch?v=eHhi6g1Glhw) 라는 곡과 Got7 의 “하지하지마” (https://www.youtube.com/watch?v=R_DX64EwH9M)를 카톡방에 올려 학생들과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다.

16 독문학사에는 다수의 그러한 시가 발견되나 한국어 교수법과 공유 관련성이 적기에 사실체크만 한다.

확장 학습방법 중의 하나로 이 시조의 표현방법인 “의인법(Personifikation)”을 활용하여 백조와 까마귀가 각자 대화를 하는 역할극을 해보거나, 나아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에 걸맞는 담화시를 짓도록 권장한다.

3.3 하여가

하여가와 단심가를 함께 번역·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상황설명이 요구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조선 개국역사라 할 지라도 짧은 시간에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한국사 강사, 설민석의 “육룡이 나르샤 ” (SBS) [17]를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이 두 편의 시조를 통해 조선의 건국역사를 독일학생들에게 흥미진진하게 잘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또 다른 설민석의 강의를 찾아 듣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18] 이 미디어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급격히 친숙하게 될 수 기회를 얻는다. 하여가의 작가인 이방원이 조선의 3 대왕 태종이라는 것을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첫 과제로 하여가와 단심가의 저자 태종과 정몽주의 사진을 수집하도록 추천해 보았다.[19] 이후 다음 과제를 수행한다.

- “어떠하리”를 현대어로 고쳐본다.
- “얽히다”와 “꼬이다” 등의 어휘를 찾아 비교.
- “-라”체가 주는 반말 문법체계에 맞추어 화용적 상황을 습득하되 그 활용대상에 있어, 소수의 조선시대 여성작자 시조의 어법과 어미형태와 비교하여 조선시대 사회(Gesellschaft)에 대해 토론.

3.3. 하여가 - 이방원	**3.4.** 단심가 - 정몽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까지 누리리라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줄이 있으랴

3.4 단심가

단심가는 고려말, 조선초 충신인 정몽주가 후일 조선 3 대왕이 된 이방원이 시조 “하여가”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자 결코 고려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충신의 마음을 나타낸 시조로 유명하다. 한국 시조중 “고절”(곧은 절개)의 대표적인 시다. 역사의 한 장면인 정몽주의 마음을 돌릴수 없음을 알아차린 이방원이 이성계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던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죽이는 장면을 두 학생이 역사적 배경을 참작하여 서로 마주 보고 읊게 하면 여느 역할극 못지 않게 역할극 수행과 낭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외 학생들은 이 시조의 주제를 찾기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

---

17 설민석 역사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u7_Q1hFIbes 육룡이 나르샤 (Six Flying Dragons)

18 설민석의“조선왕조실록”과 영화 “명량” 백 배 즐기기의 차원에서 강의하는 “전쟁의 신 이순신”, “역린”, “남한산성” 등은 이미 2, 3 백만 뷰를 기록하며 한국과 한국사를 배우려하는 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의 여론이 있겠으나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 학생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19 왕과 신하의 신분에 따른 조선시대 의복의 단순한 비교만으로도 학생들의 한국 역사에 관심은 백배상승한다. 문양이 새겨진 궁중의상과 관복이 다르며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입었던 곤룡포와 가슴과 등, 어깨에 새긴 용무늬 왕의 의상 차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더해질 수 있다.

- “넋”과 같은 뜻의 현대단어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 단어가 들어가는 예문은? 독일어로도 “넋”이 존재할까? 이 단어는 “정”이나 “한”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번역이 어렵다.
- “임”은 여기서 누구를 칭하는가? 충신이라는 단어의 독일어 수용문제는?
- 지조, 높은 절개(고절)와 관련된 소재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나무, 소나무, 국화, 매화 등의 개념을 알고 이해, 독일학생들과 의견 교환
- 사자성어, 한자성어, 고사성어에 대한 인식과 도입: 예) 일편단심 등
- 두 시조를 읽고 번역한 후의 의견과 비판은?
-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일화을 알고 있는지?[20]
- 조선역사와 독일역사에 이러한 정서의 대립이 있었는가 등에 대해서도 연구조사,토론.

4. 결론

독일 쾰른 대학교의 중국학과 일본학 중심의 동양학부(OAS) 산하 한국어 강좌가 “교양”강좌로 제공됨에 따라 대부분 GeR, B1 에 상당하거나 (그 이상) 한국어실력을 지닌 독일학생들을 위한 고급반 한국어 수업을 위해 이전 한글 문법학습을 근저로 하되 문학, 문화, 사회, 정치 등 한국관련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한국의 정신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수업내용이 요구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문화의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자료를 나날이 빨라지는 SNS,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利點)을 등에 업고,독일학생들이 역할극을 지어내 비디오를 만들어 쾰른대학교 한국어 수업 카톡방에 띄우기도 하고 아직은 미숙하나 시조의 음률 형식에 맞춰 한글로 된 시조도 창작하는 것을 보며, 한국학 전공수업이 아닌 여러 단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나 수업자료 선택에 있어 융통성있고,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운 교양강좌로서의 고급반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가치관 전달과 활용 내지는 공유”라는 학습목표를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개발, 활용해 보았다. 한국 전통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의 활용가능성의 하나로 한국 전래동화 중, 지혜를 통한 나눔과 보은의 주제를 가진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은혜를 갚은 꿩” 그리고 훈계, 절개, 충절, 의리와 타협 등의 주제를 가진 “고시조 네 편”을 선택하였는데 다양한 학습목표 실행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 번역작업 등을 통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흥미를 일깨우는 것에 일조하길 희망하며 점진적으로 상이한 단과대학생들의 학업이나 인성의 차이점 등이 고루 반영된 학습의 결실을 얻기 위해 전래동화나 시조 수업자료 선택시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과 같은 주제도 다뤄 더욱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얻고자 한다. 나아가 부단한 한국문화·문학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양학부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고급반 수업”이 단순한 언어습득만이 아닌 한국 문학과 문화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박갑수 (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33, 365-393
박희영 (2009):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in Korean through Han-Cha. A case study of

20 대상은 다르지만 성삼문의 시조“수양산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엣 것인들 긔 뉘 따헤 났다니”와 비교해 볼 때 조신충신들의 고절은 중국인의 그것을 능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the EAS. 한국어로 습득하는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한자의 위상. The 2th EAKLE workshop
윤여탁 (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 291-308
전우, 강수 (2017): 중국 범주강삼각주 지역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문학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69, 191-212
Cha, Chung-Hwan (2013): Japanese Learning of Korean Culture through Korean
Cho, Dong-IL (2005): Korean Literary History in the East Asian Context. Acta Koreana, Vol.8 (2), 97-115 Classucal Novels. Korea Journal, Vol.53 (2), 155-180
Choe, Ikhwan (1991): Form and Correspondence in the Sijo and Sasŏl Sijo. Korean Studies, Vol.15, 67-82
Chung, Chong-wha (1989): Korean poetic tradition and the sijo. 54-62
Chung, Chong-wha (1989): Thirty Sijo Poems, 63-94
Hoppmann, Dorothea (2009):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Verlag Buske
Kim, Edeltrud (2015): Übersetzen im Tandem. Probleme und Möglichkeiten einer Notlösung. Bonn, in Orientierungen, Zeitschrift zur Kultur Asiens
Kim, Joyce Jaihiun (1982): Master Sijo Poems from Korea. Classical and modern.
Kim, Joyce Jaihiun (1986): Classical Korean Poetry. Hanshin Publishing Co.
Ko, Young Cheol (2017): Exploring the Elements of Korean Literatur Education Contents for Foreigners: Selection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Contents for Russian Universities. Global Media Journal: American Edition, Vol. 15, 1-9
Weijing Le and Youngah Guahk (2017): The Concept of „Political innovation“ and it‘s Applic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in: Asien The German Journal on Contemporary Asia, Nr.142, 32-53

웹사이트

http://m.blog.ohmynews.com/barefoot/152996 전래동화 뒤집기. 발바닥이 찍고 온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Il71admtsk Six Flying Dragons(육룡이 나르샤) OST01
https://www.youtube.com/watch?v=bagj78IQ3l0 BTS 헷갈리게 하지마 (danger)
https://www.youtube.com/watch?v=eHhi6g1Glhw B.A.P 하지마 (stop it)
https://www.youtube.com/watch?v=R_DX64EwH9M GOT7 하지하지마 (stop stop it)

박희영(Park Hiyoung)
독일 쾰른 대학교
Universität zu Köln
Albertuts-Magnus-Platz
50923 Köln / Deutschland
전자우편: hpark@uni-koeln.de